

#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엄정 관리한다

## 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부당 집행된 보조금 반환 의무화·벌칙규정 신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부당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근 민간영역 확대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운영하고 있어, 보조사업자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식이 자치단체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법적 의무 등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보조금 운영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교환 등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반환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의 행정상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둘째, 보조금 관련 부정과 비리

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 없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만 적용됐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교부 주체에 따라 벌칙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징

역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형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금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만큼,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 산림바이오매스 본격 추진

### 지난달 28일 발대식... 총 471명 선발

숲 가꾸기와 벌채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산림바이오매스(임산연료)를 수집해 원목과 톱밥으로 가공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용 땀감으로 지원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고성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올해 22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거진을 병천리 산 2번지 등 11개소 총 849.0ha의 임야에서 약 10,192㎡ 분량의 산림부산물을 수집하기로 했다.

군은 이 사업으로 연간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및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5일 산림바이오매스사업 근로자를 예비소집해 사업설명, 물품지급,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데 이어 28일 발대식을 갖고 10월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상반기 250명 하반기 221명 등 총 471명이 선발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층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지난달 28일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발대식이 열렸다.

## “친절마인드 확립으로 주민 만족”

### 고성군 '불어라 CS바람' 주제 친절서비스 교육

고성군은 고객만족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불어라 CS바람'이라는 주제로 공무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CS란 고객만족을 뜻하는 customer satisfaction의 영문표기다.

군은 다양한 고객 욕구와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위해 고객이 만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는 CS솔루션 전임강사 박은숙씨가 나와 '불어라 CS바람'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씨는 "기본매너를 통해 외부 고객은 물론 내부고객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의 자기계발과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하고 주



고성군은 고객만족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민 만족경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감성 목소리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 민원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스킬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고성군은 이날 교육을 계기로 대민 서비스의 중요성 인식 및 고객감동 실천 동기를 부여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하고, 군민들에게 한차원 더 높은 감동을 주는 친절한 고성군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고객 만족 경영을 업무와 직결해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별강좌를 실시하는 등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고성군보건소 수학여행철 위생점검

고성군보건소 위생담당팀은 지난달 28일 수학여행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학여행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를 위해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했으며, 1개반 2명이 7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내용은 숙박 시설에 대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및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 실시 여부, 객실 및 침구 청결 등 위생관리 여부 등이다.

식품접객시설은 조리장 청결관리상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비롯해 남은 음식 재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여부, 조리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을 점검했다.

박승근 기자

읽고난 고성신문은 이웃과 함께 보세요